

투어 번호
LKXB8CMGGH

세계의 감각 (14일)

14일 · 13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4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표준 루트를 따라 서해안에서 출발하여 고대 문화삼각지대를 거쳐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고, 남부 국립공원과 해안을 거쳐 콜롬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섬의 주요 역사 유적지와 야생동물 사파리, 마을 경험, 차와 향신료 지역, 그리고 남부 해안에서의 연장 체류를 결합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루트에서 나라의 광범위한 단면을 제시합니다.

여정 중에 여행자들은 담불라의 동굴 사원과 시기리야의 암석 요새를 방문하고, 폴로나루와의 유적을 걷고, 미너리야와 야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합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투어가 차 공장, 누와라 엘리야 마을, 호튼 플레인스, 그리고 나인 아처 브릿지를 포함한 엘라 주변의 산책 명소를 거칩니다. 우나와투나에서의 다박 숙박은 여행의 후반부를 고정시키며, 콜롬보로의 귀환 전에 갈레 요새, 거북이 보전, 갓대 어부, 고래 관찰을 다루는 일일 옵션들이 있습니다.

일정은 급하지 않고 꾸준한 속도로 진행되며, 문화삼각지대와 산악 지역을 거치는 1박 체류가 캔디, 누와라 엘리야, 야라, 우나와투나에서의 더 긴 체류로 균형을 이룹니다. 투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운전사 가이드 여정으로 운영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투어는 오랜 어업 전통과 해변으로 알려진 서부 해안의 네곰보에서 시작됩니다.



네곰보 해변

스리랑카 서부 해안에 위치한 모래 해변으로, 수백 년 된 어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상 스포츠와 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라앉은 50년 된 난파선 주변의 산호와 해양 생물을 보러 가는 투어도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 네곰보 → 담불라 → 시기리야

여정은 내륙의 문화삼각지대로 이어지며, 시기리야로 가는 길에 담불라 석굴 사원에 들릅니다.



담불라 석굴 사원

기원전 1세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동굴 유적지로, '담불라의 황금 사원'으로 불립니다. 다섯 개의 주요 동굴에는 고타마 붓다의 생애를 담은 고대 벽화와 수백 개의 불상 및 신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신성한 왕의 동굴'과 '대왕의 동굴'도 포함됩니다. 동굴 단지 바로 바깥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3 시기리야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시기리야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와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를 둘러보는 당일 여행입니다.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고대 수도의 유적입니다. 주요 유적으로는 갈 비하라, 바타다게, 연꽃 목욕탕,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이 도시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여겨지는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석상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관목지와 숲으로 이루어진 공원을 둘러보는 사파리로, 코끼리를 비롯한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의 서식지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건기에는 15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한 곳에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을 볼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4 시기리야 → 마탈레 → 캔디

시기리야 바위 등반과 마을 체험, 그리고 캔디로 가는 길에 향신료 정원 방문이 어우러진 하루입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5세기에 카샤파 왕이 세운 바위 요새로, 입구에는 한 쌍의 사자 발 조각이 있어 이곳이 '사자 바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길에는 색이 바래지 않은 고대 벽화와 계단식 정원, 여전히 사용 가능한 저수조, 그리고 정상의 궁전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을 체험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이동한 뒤, 고요한 호수를 카타마란으로 건너고 수확을 앞둔 논밭을 걸어서 지나갑니다. 전통 요리 시범을 통해 스리랑카 요리의 기초를 배우고, 장작불로 만든 가정식 요리를 연잎에 담아 즐기는 점심 식사가 이어집니다.

유포리아 향신료 및 약초 정원

스리랑카 향신료의 수도로 불리는 마탈레 인근에 위치한 향신료 및 약초 정원으로, 본래의 향과 효능을 유지해 주는 열대 기후 속에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가이드가 동행하는 향신료 투어에서는 스리랑카 향신료와 약초, 아유르베다의 활용법을 여러 언어로 설명해 줍니다.

Day 5 캔디

캔디에서의 하루는 왕립 식물원, 불치사, 그리고 저녁 문화 공연으로 채워집니다.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광활한 정원으로,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 등 4,000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대포알나무, 현수교, 미로 정원, 그리고 크고 희귀한 나무들이 늘어선 길이 눈길을 끕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불치사

16세기에 지어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사원 내부의 통로와 홀은 빨강, 크림색, 검정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곳곳에 조각된 기둥과 황금 조각상이 자리합니다.

A.Savin · FAL



캔디 문화 공연

불 춤, 칼 춤, 그리고 드럼 연주에 맞춘 캔디 전통 춤 등 스리랑카 전통 예술을 선보이는 한 시간 분량의 저녁 공연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6 캔디 → 누와라엘리야

여정은 고지대로 이어지며, 누와라엘리야에 도착하기 전 차 공장에 들릅니다.

차 공장 및 농장

실론 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문입니다. 차는 영국인들이 처음 실론에 들여와 1824년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에 심었으며, 1852년 제임스 테일러가 캔디 인근 룰레콘데라 농장에서 상업적 차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실론 티는 오늘날까지도 그 품질로 유명합니다.



누와라엘리야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에게 최고의 휴양지로 사랑받았던 고산 도시로, 오두막과 별장, 저택이 늘어선 거리가 특징입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 빅토리아 여왕 공원, 그레고리 호수 호숫가 등이 방문할 만한 명소입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7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초원과 운무림, 전망대로 유명한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으로의 당일 여행입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 인근에 위치한 고산 초원과 운무림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으로, '월드 엔드' 절벽에서 바라보는 전망과 베이커스 폭포의 물보라가 유명합니다. 이 평원에는 다수의 고유종 동물과 고고학적으로 흥미로운 장소들이 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Day 8 누와라엘리야 → 엘라 → 얄라

여정은 엘라의 차밭과 트레킹 코스를 지나 얄라로 이어집니다.



리틀 아담스 피크

선명한 초록빛 차밭과 바위 지형을 지나는 산책길로, 주변 고산 지대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인 아치 브리지

건설 당시의 이야기가 담긴 식민지 시대의 철도 다리로, 엘라 트레킹 코스의 일부로 직접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Deitel55 · CC BY-SA 3.0



데모다라 기차역

독특한 루프형 선로 설계로 유명한 역으로, 엘라 트레킹 코스의 종점입니다.

A.Savin · FAL

Day 9 얄라

얄라 국립공원에서 하루 종일 즐기는 사파리입니다.



얄라 국립공원

스리랑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입니다. 스리랑카 표범, 토착종인 물소, 스리랑카 늘보곰, 그리고 대규모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10 우나와투나 (10~12일차)

남부 해안의 우나와투나에서 사흘을 보내며,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해상 스포츠를 즐길 시간입니다.



우나와투나 해변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해변 중 하나로, 부드러운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고급 호텔들이 특징입니다.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 해변을 찾아오며, 제트스키와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3 우나와투나

식민지 시대의 요새와 박물관을 둘러보기 위해 인근 도시 갈레로 떠나는 당일 여행입니다.



갈레 요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통치 시기에 그들의 본부로 사용되며 세워진,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입니다. 요새 안에는 해양 박물관, 갈레 국립 박물관, 등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식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자갈길도 남아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4 아한가마 → 콜롬보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투어는 콜롬보 관광을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이동하며 마무리되며, 가는 길에 남부 해안을 따라 선택적으로 들를 수 있는 명소들이 있습니다.



콜롬보 시티

스리랑카의 수도를 둘러보는 투어로, 옛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 박물관 등 역사적인 명소들과 함께 독립 광장, 경마장, 그리고 부티크와 디자이너 매장에서의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Gihanud2001 · CC0

레카와 거북이 부화장

스리랑카 해안에 알을 낳는 다섯 종의 멸종 위기 바다거북에 대해 배우는 야간 거북이 관찰 투어로, 몇 시간 동안 부화장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거북이가 해안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코갈라의 스틸트 피셔맨

코갈라 해안을 따라 막대 위에서 낚시하는 '스틸트 피셔맨'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으로, 수대에 걸쳐 이 기술을 이어온 어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일몰 시간에는 사진 촬영에도 좋은 조건이 됩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고래 관찰

남부 해안을 떠나 대왕고래, 향유고래, 긴수염고래를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는 보트 투어로, 숙련된 자연 해설가가 동행하여 각 종을 책임감 있게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Ji-Elle · CC BY-SA 3.0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Entry Visa Fees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Lakpura® · 요금, 옵션 및 예약: www.lakpura.com/ko/products/sensation-of-the-world-14-days
hello@lakpura.com · +94 11 574 7474